

장흥 6개 항포구 '어촌뉴딜' ... '살기 좋은 고장' 변신중

군, 2019년부터 '어촌뉴딜300' 6곳 선정...사업비 550억원 확보 어항 기반시설 확충·특산물 경쟁력 강화·관광지 편의시설 조성 등

장흥군이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지역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회진면 이회진항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95억원(국비 66억, 도비 9억, 군비 20억)을 확보했다.

2019년 회진 노력항을 시작으로 관산 우산항, 회진 신상-신기항, 대리항, 안양 수문항에 이어 여섯 번째로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이 기간 장흥군은 총 사업비 55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회진항은 청정 무산(無産)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으로는 열악한 어촌-어항 기반을 정비하고, 해조류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나간다.

김, 다시마, 꼬시래기, 쇠미역 등 해조류의 브랜드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의 인프라 재정비 사업도 추진한

다. 소설가 이창준 '선학동 나그네'의 소설 배경이 되는 선학동에 문학탐방로를 조성해 문학쉼터와 휴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갯벌체험로 개설로 바지락 및 꼬막 캐기 등 어촌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만든다.

기존 천년화 리조트는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해조류복합커뮤니티, 해조류연구소, 체험학교 등으로 활용 폭을 넓힌다.

2021년 선정된 수문항은 어촌-어항 기반정비하고 키조개 테마공원을 조성해 키조개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0년 회진 신상신기항은 선착장을 연장하고 물양장을 확장해 어민들의 안전한 선박접안과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어민소득과 연계한다.

대리항은 선착장 연장도 도제 시설로 어민의 선박을 보호하고, 우산항은 물양장과 선착장 연장 확장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생활기반을 개선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어촌-어항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이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지역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장흥 회진면 이회진항. <장흥군 제공>

장성 드론 방제기, 방제 효과 업그레이드

군, 연시회...농약, 공기중 흩어지는 양 30% 줄여

장성군이 방제 효과가 높은 최신 드론 방제기를 도입했다.

장성군은 지난 11일 지역 농업인 30여 명과 농업용 드론 방제기 연시회를 열고 공기흡입형 무인 방제기 운용 시범을 보였다. <사진>

군이 새로 도입한 드론 방제기는 농촌진흥청이 최근 개발했다.

공기흡입형 노즐을 장착해 농약이 바람에 날리는 단점을 보완했다.

이 기기의 농약 작물 표면 부착률은 기존 기기의 4배에 달한다.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농약 양은 30%가량 줄었다.

작물별 방제 효과는 벼는 40%, 콩 12% 향상됐다. 약을 잘못 써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개발되는 드



드론 정밀방제 시스템을 연시회를 통해 공유하겠으며, 농가 기술 보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 저소득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 지원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화순군과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저소득 어르신들의 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깊은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은 화순군민 가운데 의료급여·차상위계층 등이며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60살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하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최대 240만원 한

도 내에서 수술비가 지원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수술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북읍 화순군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노인의료나눔재단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제 기자 byj@kwangju.co.kr

담양 65세 이상 군민 39명에 보청기

담양군이 만 65세 이상 군민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노인 난청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노인난청 지원사업은 노인성 난청으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이다.

2014년 시범사업 추진 이후 12개 읍면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까지 570명에 733개의 보청기가 지원됐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명의 개인에 보청기 본뜨기가 완료되는 등 지원이 이뤄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장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향촌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문화예술회관 20일 오케스트라 공연

장흥군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알라-한동준 위드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된다.

가장력을 인정받은 가수 알리과 한동준, 가수 개그맨 김재룡(김재욱) 등이 무대에 오른다.

박상현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협연도 마련된다.

관람료는 모든 좌석 1만원이다. 입장권은 '티켓링크'나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살 수 있다.

장흥군은 올해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장흥군문화예술단체연합회를 발족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 금성산 정상, 56년 만에 시민 품으로

시-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

나주의 진산(鎭山) 금성산 정상부가 56년 만에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나주시와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은 지난 11일 시청에서 올해 안에 금성산 정상부를 상시 개방하는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시장과 이종서 여단장, 이상만 시의회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금성산 정상부는 지난 1966년 공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매년 1월1일 새해 햇맞이 행사를 제외하고 일반인 개방이 제한돼왔다.

이번 상시 개방이 추진되면 56년 만에 정상부가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연말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 관계자들과 만나 공군 방공포대 이전에 따른 산 정상부 상시 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나주시와 공군은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위해 이번 상시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나주시와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은 연내 산 정상부 상시 개방을 목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상시 개방을 위한 노적봉 탐방(등



윤병태(왼쪽) 나주시장과 이종서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장이 지난 11일 시청에서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산)로-쉼터 등 개설, 공사 구간 사전 지뢰 확인·제거, 안전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시장은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정상부를 5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역사적인 협약을 체결해 뜻깊고 기쁘다"며 "공군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올해 산 정상부

상시 개방을 위한 협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마랑놀토수산물시장' 다음주 개장

강진군, 22일~10월28일까지 개장식, 박서진 등 트롯 공연 갑오징어 등 수산물 저렴

매주 토요일 열리는 '강진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이 오는 22일 첫 장터를 연다.

강진군은 '제7회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이 마랑항에서 이달 22일부터 오는 10월28일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개장식은 22일 오후 3시 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장구의 신' 박서진, 유지나 등이 무대를 꾸민다.

마랑놀토수장은 지난 2015년 5월 시작한 뒤 지난해까지 99만여 명이 다녀갔다.

올해 장터에서는 110m 길이 화려한 LED 조명의 바다 분수를 만날 수 있다.

미디어 파사드와 에어바운스 놀이기구를 들여 불거리와 즐길 거리가 추가됐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요 경연대회 '노래가 좋단마랑'도 새로 출발한다.

월별 예산에서 기금을 겨우겨우 오는 10월28일에는 최종 결산에서 수상자를 가려낸다. 1등 수상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매달 다양한 음악회도 장터 무대에 오른다.

마랑놀토수장은 강진 앞바다에서 난 제철 수산

물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봄철에는 갑오징어와 주꾸미, 여름에는 농어와 갯장어(하도), 가을에는 전어와 꽃게, 낙지 등이 식도락가를 유혹한다.

강진을 대표하는 수산물인 전복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강진군은 마랑놀토수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마랑 전망대카페에서 초청 공연과 노래 감상을 진행한다.

가수 김현진, 권도훈, 정다현과 팬클럽 등이 무대에 오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3최(最)-3무(無)'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최고 신선·품질·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수입 수산물이나 세균 감염증, 바가지요금이 없는 시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랑놀토수장 개장 전날인 21일부터 사흘간 강진군 성전면 녹차밭 일원에서는 '제3회 강진 월출산 뽕소풍 가는 날'이 개최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마랑항 전경(위). 지난해 장터 진행 모습. <강진군 제공>

